

화재안전

1. 화재는 왜 일어날까요?
[화재의 원인 및 현황]
2. 화재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화재 예방 안전수칙]
3. 화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발화 초기]
[소화]
[대피]
[건물 내에 갇혔을 때]
[화상을 당했을 때]

1. 화재는 왜 일어날까요?

[화재의 원인 및 현황]

전체 화재사고의 대부분은 화기취급시 부주의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전기 화재의 대부분은 전기 코드나 전선 등 전기용품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과 부주의한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유류 화재는 주로 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불씨가 옮겨 붙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연성 가스 화재는 취급부주의, 안전시설의 미비, 밸브 및 배관 제품의 불량에 의해서 일어나며 대부분 폭발과 함께 발생하므로 다른 화재에 비하여 그 피해가 큼니다. 담뱃불 화재는 연소 위험 장소에서의 흡연, 피울 때의 부주의, 피우고 난 후에 궂초를 함부로 버리는 일 등으로 발생합니다. 불장난 화재는 대부분 어린이들에 의해서 성냥, 난롯불, 모닥불, 아궁이불,ライター, 전기다리미, 초 등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발생하며 불꽃놀이, 화약놀이 등에 의해서도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 년의 경우 총 44,435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90 명, 재산피해는 4,331 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 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화재건수는 5.5%, 재산피해는 6.8% 증가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2014~2015 년)>

연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계	사망	부상		
2014	42,135	2,181	325	1,856	4,054	
2015	44,435	2,090	253	1,837	4,331	
전년 대비	증감	2,300	-91	-72	-19	277
	비율(%)	5.5%	-4.2%	-22.2%	-1.0%	6.8%

출처: 국민안전처, 2016 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2015 년도 기준 23,525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기적요인 8,980 건, 기계적요인 4,511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2014~2015 년)>

구분	계	전기 요인	기계 요인	가스 누출	화학 요인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실화	자연 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2014	42,135	9,445	4,064	168	360	511	21,489	866	243	478	948	3,563	
2015	44,435	8,980	4,511	146	452	520	23,525	847	283	467	795	3,909	
전 년 대 비	증감	-2,300	465	-447	22	-92	-9	-2,036	19	-40	11	153	-346
	비율 (%)	-5.2%	5.2%	-9.9%	15.1%	-20.4%	-1.7%	-8.7%	2.2%	-14.1%	2.4%	19.2%	-8.9%

출처: 국민안전처, 2016 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2015 년도 기준 대형화재발생 건수는 6 건, 인명피해는 157 명(사망 11 명, 부상 146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대형화재발생 현황(2010~2015 년)>

연도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합계	사망	부상	
2010	3	45	14	31	5,872
2011	2	19	7	12	242
2012	13	265	17	248	3,382
2013	8	119	7	112	100,195
2014	6	163	33	130	56,572
2015	6	157	11	146	78,587

출처: 국민안전처, 2016 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장소별 화재발생 건수는 2015 년도 기준으로 비주거 14,716 건, 주거 11,587 건, 자동차 및 철도차량 5,031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소별 화재발생 건수(2010~2015 년)>

구분	합계	주거	비주거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 제조소 등	선박 항공기 등	임야	기타
2010	41,863	10,509	16,395	5,788	30	112	2,209	6,820
2011	43,875	10,645	16,388	5,595	37	75	3,003	8,132
2012	43,249	10,691	15,966	5,510	28	115	2,691	8,248
2013	40,932	10,596	15,066	5,250	24	89	2,334	7,573
2014	42,135	10,860	14,961	4,827	22	107	2,921	8,437
2015	44,435	11,587	14,716	5,031	26	117	3,342	9,616

출처: 국민안전처, 2016 년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2. 화재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화재 예방 안전수칙]

-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끕니다.
- 전깃줄을 꼬거나 줄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지 않습니다.
- 전기기구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 껌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합니다.
-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구 근처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 선풍기를 틀고 잘 경우에는 타이머를 맞추고 잡니다.
- 가스렌즈 사용 후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 담배꽂이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3. 화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발화 초기]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발신기(경보기)를
누릅니다.

침착하게 119로 화재발생을
신고합니다.

창문이나 출입문은 열기
전에 손을 대어 확인하고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전기 개폐기를 내려서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합니다.

주위에 있는 소화기 및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화합니다.

대피 후에 사람을 구하거나
귀중품을 가지러 함부로
무리한 진입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건물 내에 갇혔을 경우,
수건을 창문 밖으로 내어
흔들거나 고함을 질러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소화]

① 소화기를 똑바로 세워진 상태로 유지하고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접근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쓰기 전에 흔들어야 합니다.

② 안전핀을 뽑습니다.

③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곳으로 호스를 겨냥한 다음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습니다.

④ 약제가 나오면 호스를 천천히 움직여 비로 쓸 듯이 소화합니다.

[대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화재 시 피난 계획을 세워둡니다.

고층건물 출입시와 호텔, 여관 등에 숙박시에는 사전에 피난계단, 피난기구 등을 확인하여 둡니다.

화재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비상구 및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낮은 자세로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감싸고 숨을 짧게 쉽니다.

승강기는 갇히거나 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킵니다.

피난 시설 및 기구 없이 대피할 때는 커튼, 천 등으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리며, 당황하여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건물 내에 갇혔을 때]

화기가 없는 창가로 가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흰 천을 흔들어서 자기 위치를 알립니다.

연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의 천으로 물을 적셔서 문틈을 막아야 합니다.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서 문틈을 막고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낮은 자세를 취하여 짧게 숨을 쉽니다.

위급한 상태 일지라도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함부로 창밖으로 뛰어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나 팔 등은 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며 젖은 모포 등을 뒤집어씹습니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두고 커튼 등을 제거합니다.

[화상을 당했을 때]

-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혀 줍니다. 오래 찬물에 담그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10분 이상 담그지 않습니다.
-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톹니다.
- 물집이 생겼을 경우 터진 부위로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 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열을 식힌 후에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해 줍니다. 절대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당했을 경우 피부가 떨어져나갈 수 있으므로 옷을 억지로 벗거나 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 상처에 소독 솜을 사용하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하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화상을 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1 도 화상의 경우 대개 드레싱이 필요합니다.
- 2 도 화상의 경우 화기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 표면의 20%(어린이는 10%) 이상을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 3 도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의 열기가 없어지기 전에 연고, 항생연고, 기름, 버터, 크림, 분무기, 민간약제 등을 바르지 않습니다.